

	광복회	보도자료	민족정기 선양 통일조국 축성 자존품위 제고
	담당부서 (담당자)	대외협력국 이메일	(부장 김재영) tel 02-780-0816, fax 02-782-5677 gwangbok@gwangbok.kr

* 보도시점: 대한민국 106년 5월 2일(목) 배포 즉시

**“독립영웅 흉상 재이전 시도,
총선민의 거스르는 경악스럽고 비겁한 짓”
육사흉상이 정 지긋지긋하다면 차라리 폭파하라!
광복회, 독립영웅 흉상 재이전 시도 비판 성명**

“이전 정부의 국민적 숙원사업 뒤엎는 작태, 국방장관 책임지고 사퇴해야”

우리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국방당국이 행한 조치가 멀쩡하게 서 있는 육사내 독립운동 선열들의 흉상을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국방부는 비겁하게도 “육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방식으로 육사내 흉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옮기지 않고 육사 안 별도 장소에 옮기겠다는 것이다.

국방당국의 조치가 경악스럽고 비겁한 것은 그 동안 육사내 독립영웅 흉상 철거 방침에 대해 누우치고 반성한 것이 아니라 몰래 숨기다 오히려 기회를 보아 옮기는 교활한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흉상철거가 당당하다면 총선시기에 내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일이었다. 그런데 민감한 선거시기에는 국민의 지탄이 두려워 숨겨놓았다가 이제 변형된 형태로 독립영웅들의 흉상을 슬쩍 옮기려는 것이 비겁하다는 것이다.

이는 당당한 국군의 자세도 아니다. 6.25 직전 일제 잔재들의 소인배 근성과 다를 바 없다. 당시 국방당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현혹하여 반공정신과 튼튼한 군비를 갖춘 양 속여 오다가 북의 남침에 일격을 당한 전례를 우리 국민은 역사에서 기억하고 있다. 요즘 국방당국의 비겁하고 이중적인 태도가 꼭 그때를 생각나게 한다.

광복회는 국방부가 멀쩡하게 서 있는 독립영웅 흉상 철거와 이동계획을 사주, 독립운동가를 부끄럽게 하고 군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는 이번 총선 민심의 심판에 따라 국방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첫째, 10만 카자흐스탄의 동포들을 비롯한 전 세계 100만의 고려인들은 “만약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1cm만 이동하더라도 우리는 그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받은 일체의 훈장이나 표창을 반납할 것”이라고 성명하였다. 전 세계 해외동포들로부터 거족적 거부를 당할 경우 우리의 국방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데 대한 책임질 것을 경고한다.

둘째,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이나 흉상 건립사업은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숙제였다. 이를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한 셈이다. 이런 국민적 숙원사업을 윤석열 정부에서 뒤엎어 국민을 분열시키는 데 대해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고 이에 응당한 책임질 것을 경고한다.

셋째, 오는 6월 새 국회가 출범한다. 수많은 민생문제를 제쳐두고 육사 내 독립영웅 흉상철거문제를 제일의 정치쟁점으로 부각되는 되는 데 대해 국방당국은 바라고 있는 지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경고한다.

넷째, 육사내 독립영웅들의 흉상이전은 잘못된 결정이었으며, 따라서 흉상철거 이전계획 백지화가 이번 총선의 민심이자 국민들의 지상명령이었다. 국방당국은 흉상이전이 과연 온당한 일인지를 국민에게 먼저 묻길 바라며, 그럼에도 ‘전 시대 다른 군 영웅과 함께 전시 운운’하며 이동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한다.

광복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2년 전 정치를 시작하면서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을 선택한 정신을 기억한다. 육군사관학교는 독립선열들의 영웅적 대일항쟁의 정신을 누구보다도 나서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하는 곳이다. 육군사관학교에서 독립영웅들의 흉상을 없애려는 이런 매국적 행동은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변질시키는 행태이다.

다시 경고한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정 육사 내 독립영웅들의 흉상을 지긋지긋하게 여기고 이전시키려 한다면 차라리 폭파해 없애버려라.

2024년(대한민국 106년) 5월 2일

광 복 회

끝.

※ 본 보도자료는 광복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